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아 름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career aspirations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201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아 름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아 름

김아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택호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지현 (인)

2018년 11월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8
II. 이론적 배경	9
A. 진로포부	9
1. 진로포부의 개념	9
B. 진로장벽	11
1. 진로장벽의 개념	11
2.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	12
C. 셀프리더십	13
1. 셀프리더십의 개념	13
2. 셀프리더십과 진로장벽의 관계	15
3. 셀프리더십과 진로포부의 관계	15
III. 연구 방법	16
A. 연구 대상	16
B. 측정 도구	16
1. 진로포부 척도	16
2. 진로장벽 척도	17
3. 셀프리더십 척도	18

C. 연구절차	19
D. 자료분석	20
IV. 연구결과	21
A. 기술통계	21
B. 측정변인 및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23
C. 측정모형 검증	25
D. 연구모형 검증	28
V. 결론 및 논의	32
VI. 참고문헌	36
VII. 부록	40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6
<표 2> 진로포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17
<표 3> 진로장벽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18
<표 4> 셀프리더십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19
<표 5>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표 6>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22
<표 7>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25
<표 8> 측정모형 잠재변인 간 관계	26
<표 9> 측정모형 주요변인 간 판별타당도 검증	28
<표 10> 최종연구모형 경로계수	29
<표 11> 전체 집단의 구조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31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8
<그림 2>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24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27
<그림 4> 최종 연구 모형	30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career aspirations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Kim A reum

Advisor : Prof. Kweon Hae Soo, Ed. D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career aspira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344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Gwangju area. The scale used in the study a Career Aspiration Scale (CAS), In the case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 career disability search test (KCBI), The self-leadership scale (RSLQ) was used. The hypotheses of the study were verified by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using SPSS 23.0 and AMOS 24.0.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spiration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influence self-leadership. Third, self-leadership affects career aspirations. Finally, self-leadership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career aspir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higher the perceived career barrier, the less self-leadership, which tends to lower career aspirations.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Key word : Career barriers, career aspirations, self-leadership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과 동시에 성인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성공적인 성인기를 위해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그 중 일부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한다(김상옥, 2010).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학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 및 준비를 하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미래의 삶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며 행동한다.

그 중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고민하게 된다.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더 나은 미래와 진로를 위해 취업을 미루고 특정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했기에 그 고민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며 졸업 후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직업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는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심각하고 큰 과제가 되었다.

진로에 대해 최초로 고민한 경험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장래희망을 이야기할 것이다.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지에 대한 생각은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있는 경험이다.

이처럼 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만들어 갈 진로에 대해 나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의 진로이미지를 형성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만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진로이론에서 벗어나 그동안 경험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맥락적 변인의 영향을 받아 진로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Lent, Brown, Hackett, 1994). 이를 바탕으로 개인은 자신의 성별, 지능, 적성, 흥미, 가치 등에 맞는 진로포부를 선택하게 된다.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란, 개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O'Brien, Gray, Tourajdi, & Eigenbrode, 1996)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기대와 희망 등이 해당한다(박외자, 2010).

Gottfredson(1981)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특정한 기준으로 자신의 진로포부를 스스로 절충시켜 나가고, 자신의 실제 능력과 이상간의 타협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자신만의 진로포부를 구체화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그의 직업포부 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의 시기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의 단계로 내적인 사고를 통해 자아개념이 발달하고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며 자아성찰과 사회계층적인 맥락에서 직업포부가 발달한다고 본다.

이는 이상적 진로와 현실적 진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은 여러 경험을 통해 가능한 진로적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 타협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박혜영, 2015). 그렇기 때문에 진로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개인 내적요인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외적 환경요인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진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은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진로포부는 개인의 진로계획 수립과 진로선택 및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O'Brien, Gray, Tourajdi, & Eigenbrode, 1996).

Hotchkiss와 Borow(1996)은 이러한 직업포부의 과정이 개인의 생활양식과 삶의 가치관 및 삶에 대한 태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며 성인기 직업적 성취와 만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수욱(2003)이 진로포부에 대해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요인이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선택한 진로의 포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그 개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한샘(2008)은 진로포부에 대해 개인이 현재 진로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기대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했으며 앞으로의 직업발달과정을 예측하고 미래의 직업적 성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했다.

특히 대학생에게 진로포부는 중요한 연구적 가치가 있다. 박혜영(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포부가 개인의 진로계획 수립과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발달 과정과 직업적 성공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발달연구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말한다. 또한 유채은(2012)의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 중 대학생들의 직업경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로포부라고 설명하면서 대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진로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변인이라고 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진로에 관한 포부 정도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은이, 2010).

진로포부는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직업적 대안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및 가치에 어울리는 현실적인 선택을 가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과거의 어떤 지위의 값을 선택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현재에는 개인이 선택한 한 직업에서의 높은 직책과 지위를 열망하는 정도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개인의 열정과 의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포부는 개인의 진로선택과 직업성취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최재혁, 홍혜영, 2016).

이와 같이 진로포부는 개인이 가지는 진로에 대한 성공적 기대감을 포함하여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진로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관련된 요인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과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의 안정적인 진로 발달 및 취업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유채은, 2012).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취업난은 대학생들의 진로포부가 제대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 급변하는 취업시장과 요구하는 지식 및 기술과의 격차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진로나 취업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좌절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혜영, 2015). 이런 현 사회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포부나 혹은 자신의 흥미나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직업의 안정성이나 성적만을 고려하여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진로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이명숙, 2003).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성상 중, 고등학교 때의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방식과 학력경쟁 및 학벌주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방해하며 이 때 자신의 진로포부를 제대로 형성시키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김이준, 2012).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포부에 대해 탐색하고 발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중시키게 되며 실제로 대학상담현장에서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고민이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은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최수욱(2003)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으며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와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전통적인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사회

적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진로포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한샘(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희망이 진로포부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희망은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채은(2012)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하위요인 중 불안애착은 진로포부와 부적상관관, 친밀애착은 정적상관관 가지며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이나 미래지향성 및 책임감이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 외(2014)의 연구에서는 Krumboltz의 과제접근기술 중 낙관성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정체감과 진로포부가 부적상관관 가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정은이(2010)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을 소개하면서 진로포부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했다. 이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자발적인 실천을 하는 셀프리더십의 특징이 개인의 직업적 성공에 대한 잠재력을 끌어 올려 성취지향적인 포부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연구에서는 직업적 자기관리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로준비와 진로성공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Andrea, Bettina, 2008; Eileen, 2018; Corey, 2018).

선행연구결과들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진로 정체감 및 효능감이나 낙관성, 셀프리더십, 자기주도성 같은 개인적 변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등 환경적 변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언급된 Gottfredson(1981)의 이론뿐만 아니라 많은 이론에서도 역시 개인이 진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온 맥락적 변인에 의해 진로선택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이론들에 따라 진로포부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변인은 진로장벽이다(배영자, 심성지, 2013).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 과정 중에서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 및 목표성취, 역할수행, 적응 등을 방해하는 개인의 내적 그리고 외적인 상황이나 요인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진로장벽을 높게 인지하는 사람은 다양한 특징이 나타난다. 윤창영(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서로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측면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적인 진로장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더 많으며 이러한 높은 진로장벽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정효경(2009)과 차아름(2014)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많이 느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적어지고 특히 차아름(2014)의 연구에서는 환경적 진로장벽보다 심리적 진로장벽을 느꼈을 때 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나타났다. 전미애와 김정모(2012)의 연구에서는 지

각된 진로장벽이 대학생활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조현주(201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적응성에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연(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통제감을 저하시키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앞에 장애물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통제감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정보를 얻거나 탐색하는 활동을 방해하게 됨을 의미한다. 박수현(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낙관성 및 셀프리더십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조절해가는 능력이 셀프리더십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진로장벽이 진로발달에 있어 여러 방향으로 방해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진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적응에서도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장벽이 셀프리더십처럼 인지행동적인 측면외에도 개인의 효능감이나 만족감 혹은 낙관성 및 기대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준비행동이나 적응 등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이 진로탐색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간에 작용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을 보면, 학업효능감이나 사회적지지 및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진로결정수준, 긍정심리자본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박한샘, 2008; 강유선, 조은애, 2011; 유채은, 2012; 박혜영, 2015).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진로장벽은 진로포부에 부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London(1997)은 진로장벽이 개인의 무력감을 일으키고 자신감을 저하시켜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며 적절한 진로포부수준을 낮추며 이는 개인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비해 낮은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또한 진로장벽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며, 그로 인해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진로장벽에 대한 요소를 감소 혹은 제거할 수 있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진로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진로상담에서 고전적 이론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 떠오른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진로선택에 있어 객관적인 요인과 지각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많은 인지적 요인들 외에도 개인의 진로발달을 강화, 약화 또는 무효화하기도 하는 수많은 개인적 환경적 영향력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적 요인들은 객관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기 때문에 상담과정을 거쳐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은 지각된 환경요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내담자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내담자의 신념체계를 인식해야 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진로상담에서 잠재적으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과 신념, 그리고 일의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진로장벽은 지각의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진로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 여부와 같은 개인의 인지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장벽을 강하게 지각하는 경우, 해결을 미리 포기해버리거나 다른 방안으로 도피를 하는 등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준비자세 혹은 그러한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현재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전에 비해 더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최악의 취업난도 원인 중 하나이지만 급변하는 취업시장에서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환경변화에 대해 취약하다는 것도 주목할 원인이다. 오늘날의 직업세계의 상황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에 대응하는 개인의 역량이 진로 발달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강명숙, 2015).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고민을 제공한다. 실제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30%에 달하며 조기퇴사의 이유는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가 49.1%로 가장 높았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6).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명령이나 관습에 복종하기 보다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주도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진로에 관련된 결정과 준비행동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준다(김경화, 2013).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변인이 셀프리더십이다.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이란, 과업이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 통제와 자기주도성을 토대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생각과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다(Manz & Sims, 2001).

셀프리더십에 대한 개념정의는 많은 학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도성을 강조한 Manz(2001)의 개념을 인용한다.

이 개념은 주체적으로 자아를 개발하고 동기를 높여 삶의 의미를 강화하고 만족감을 높이는 데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여 자신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가는 행동적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송영수, 2011).

이미 셀프리더십은 진로자기효능감이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성숙도,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이종찬, 홍아정, 2013; 신승원, 2014; 이순화, 2015; 궁화수, 서가원, 2018), 따라서 셀프리더십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의 성숙한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심리적, 행동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뢰와 스스로에 대한 영향력인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연관이 있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부족은 정체성과 주도성을 방해한다는 연구들이 있으나(박수현, 2015; 안영순, 2017), 그 밖의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상관을 가진다는 점과 진로발달을 방해한다는 점으로 보아 개인의 진로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동기적인 측면인 셀프리더십 또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을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신승원, 2014). 실제로 정은이(2010)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포부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건설적 사고전략에서 자신의 수행 능력이 긍정적일 것을 상상하고 믿으며 또한 그럴 수 있다고 확신을 주는 대화 등의 특징은 포부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이순화, 2015).

셀프리더십은 성공적인 학업 및 진로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서 진로성공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 삶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중요하며, 타고난 성향이 아닌 학습과 노력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진로와 관련된 셀프리더십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진로장벽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함이 밝혀진다면, 대학생들에게 셀프리더십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서 셀프리더십을 적절히 활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진로포부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진로장벽이 완화되어 진로포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데 셀프리더십이 유의미한 변인이라면,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와 진로상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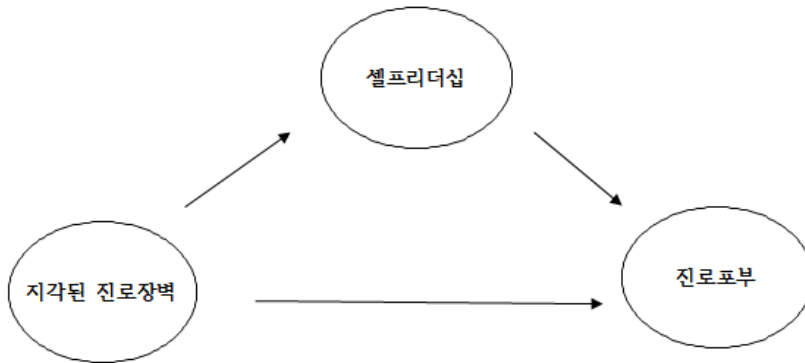
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셀프리더십, 진로포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매개할 것이다.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II. 이론적 배경

A. 진로포부

1. 진로포부의 개념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란, 진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개인이 선택한 진로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O'Brien, Gray, Tourajdi, & Eigenbrode, 1996)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긍정적인 바람직한 기대와 희망 등이 해당한다(박외자, 2010).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살고 기대하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진로에도 마찬가지로 있으며 진로적 과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겠다는 포부가 있다.

Gottfredson(1981)은 포부에 대해 이상적포부와 현실적 포부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상적포부(idealistic aspiration)는 완전한 최고의 상태를 희망하고 구하는 것이며, 현실적 포부(realistic aspiration)는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한 스스로의 기대와 계획을 의미한다. 그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특정한 기준으로 자신의 진로포부를 스스로 절충시키 나가고, 자신의 실제 능력과 이상간의 타협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자신만의 진로포부를 구체화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이 때 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부합하는 특정 직업이나 진로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자아성찰이나 자기이해가 높아질수록 진로포부가 더욱 발달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이론을 제한-타협이론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진로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타협하는 과정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했으며 여기서 설명하는 타협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 중에서 자신에게 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덜 중요한 요소들을 포기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황매향, 김계현, 2001).

진로포부는 자아개념(성, 사회계층, 지능, 흥미, 가치)이나 직업에 대한 이미지(성, 명예분야), 직업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선호성 등 개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결합되어 하나의 인지도로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 결정되고 발전된다.

Gottfredson(1981)이 설명한 진로포부 발달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1단계는 힘과 크기를 지향하는 단계로 3-5세가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사고과정이 구체화

되며 아동들은 직업을 갖는 것이 즉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2단계는 성역할을 지향하는 단계로 6-8세가 해당한다. 성의 발달에 따라 자기개념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주위 환경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호하게 되며 같은 성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3단계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단계로 9-13세가 해당한다. 이때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개념에 대해 관심이 생기며 사회적 계층이나 지위에 대해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 명성이나 능력을 통한 자기개념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적 지위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은 선택권에서 제외하게 된다. 4단계는 내적이고 고유한 자기를 지향하는 단계로 14세 이후의 시기가 해당한다. 이때는 내적인 탐색과 고찰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게 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성찰과 사회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발달하게 되며 개인의 흥미나 가치관 및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은 선택권에서 제거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은 4단계에 해당하게 된다.

윤하늬(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포부를 직업포부와 교육포부를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했다. 직업포부란 일정한 시기동안에 개인이 선택한 구체적인 직업을 의미하고 그 직업에서 얼마나 기능할지에 대한 기대감과 예상을 의미한다. 교육포부는 자신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해당 직업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경쟁이나 학력위주의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직업포부와 교육포부를 포괄적으로 보는 진로포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로포부는 개인의 전체 발달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통해 생성되는 개념 인만큼 자아개념이나 효능감, 진로 성숙도, 정체감 등의 개인 내적인 요인과 부모의 지위,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사회경제적 배경 등 외부 요인 모두에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

최수욱(2003)이 진로포부에 대해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요인이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선택한 진로 속에서 포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 개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한샘(2008)은 진로포부에 대해 진로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기대되는 교육수준, 직업지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했으며 앞으로의 직업발달과정을 예측하고 미래의 직업적 성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에 대해 맥락적 특성으로서 진로장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B. 진로장벽

1. 진로장벽의 개념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 과정 중에서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 및 목표성취, 역할수행, 적응 등을 방해하는 개인의 내적 그리고 외적인 상황이나 요인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손은령(2005)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진로장벽이란 진로와 관련된 취업이나 진학, 승진, 직업의 지속 그리고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 직무, 행동 등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이나 목표, 포부,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역할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

진로장벽은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은 진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 변인 및 사회적 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온 맥락적 변인에 의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들에 따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 맥락적 변인이 진로장벽이다(배영자, 심성지, 2013). 진로장벽은 심리적인 측면의 내적 장벽과 외부환경과 관련된 외적 장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찬열(2013)은 진로선택과정에서 자신이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직업적 측면의 흥미를 추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진로장벽을 탐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직업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영(2001)은 외국의 척도를 수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 탐색 장애요인들을 선별했다. 이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등 9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London(1997)은 사람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해 진로장벽 모델을 통해 설명한다. 위 모델에서는 개인이 가진 심리적 변인과 정서, 인지구조에 따라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수준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닦친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장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그 진로장벽을 어떤 인지와 능력을 가지고 인식하느냐이다. 그것에 따라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Gottfredson(1981)이 설명한 제한-타협이론에서도 진로장벽이 설명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개념에 따라 직업을 평가하게 되고 자신의 개념과 부합하

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이 때 진로장벽을 경험한 직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며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목표를 타협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진로장벽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 혹은 불변의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영역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2.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

대학생들이 진로탐색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간에 작용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을 보면, 학업효능감이나 사회적 지지 및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진로결정수준, 긍정심리자본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박한샘, 2008; 강유선, 조은애, 2011; 유채은, 2012; 박혜영, 2015).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진로장벽은 진로포부에 부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London(1997)은 진로장벽이 개인의 무력감을 일으키고 자신감을 저하시켜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며 적절한 진로포부수준을 낮추며 이는 개인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비해 낮은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특히 대학생은 후기청소년에 해당이 되며 진로에 대한 문제는 중,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오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양미진 외(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지각하게 된 청소년들이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자아개념이 낮아지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자아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진로목표수행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게 되면서 이 상황을 과잉 일반화하여 인생 전반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반응을 유발하며 자신에 대해 자괴감을 가지거나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했다고 해서 진로에 대한 포부가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개인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한다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 통제감이 저하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진로포부를 방해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그 장벽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시각,

효능감 등에 따라 진로포부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Lent et al., 2001). 이런 연구결과들은 개인이 진로에 대한 장애물을 얼마나 혹은 어떻게 지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매개되어 최종적으로 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능력인 셀프리더십을 진로장벽, 진로포부와 함께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인으로 보고 있다.

C. 셀프리더십

1. 셀프리더십의 개념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이란, 스스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과업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도하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자율적인 힘을 의미한다(Manz, 1986; Manz, Neck, 1999; Manz, Sims, 2001). 신승원(2014)은 셀프리더십을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현실화시키는 유용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으며 자기관리와 동기부여 및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며 스스로 세운 목표를 위해 열정을 쏟고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더십이란,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조직이나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을 의미한다. 그와 관련하여 설명되는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1980년대 조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리더십이 더 이상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강진석, 2014).

Manz(1983)는 「The Art of Self-Leadership」이라는 저서에서 자기관리의 기존 개념을 확장시켜 셀프리더십을 처음 제안하였다. 그는 셀프리더십을 “하부의 사람들에게 자기통제와 같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하게 해서 일의 성과를 증대시키는데 효과적인 내적 리더십”이라고 정의했다.

송영수(2011)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을 갖춘 인제는 타인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된다고 했다.

Houghton과 Neck(2002)는 셀프리더십을 행위 중심적 전략(behavior-focused strategies), 자연적 보상 전략(natural reward strategies), 건설적 사고패턴전략(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으로 재구성하였다.

행위 중심적 전략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주변의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화하고 자신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하위요인으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스스로에게 실행을 요구하는 행동을 한다는 목표 설정 (self-goal setting), 개인적 행동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늘리며 자신의 환경에서 얻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단서를 늘리는 행동을 하는 것인 단서전략 (management of cue), 자신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역할 연기를 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예행연습 (rehearsal),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신이 변화하기로 계획한 특정 행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며 그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인 자기 관찰(self-observation),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이룬 후 스스로에게 내적보상을 하는 것으로 미래의 행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 전략인 자기보상(self-reward), 바람직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자신에게 비판하고 자신을 교정함으로써 반복적인 실습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행동인 자기비판(self-punishment)등을 포함 한다.

자연적 보상전략은 임무나 행동의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갖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행동과 관련되는 업무 수행능력을 활성화 시키는 자기결단과 수행을 능숙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전략이다.

건설적 자기 패턴은 자신의 생각 속에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습관이나 패턴을 확립하는 것이며 비합리적인 가정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어려운 상황을 장애물이 아닌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기와의 대화, 리더에 의한 체험경험 등으로 보게 되는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 자기패턴이 셀프리더십의 핵심이며 장애요인에 집착하기 보다는 기회요인을 찾아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효과적인 습관과 유형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셀프리더십과 진로장벽의 관계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뢰와 스스로에 대한 영향력인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박수현, 2015). 그러나 실제로 진로장벽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상관을 가진다는 점과 진로발달을 방해한다는 점으로 보아 개인의 진로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동기적인 측면인 셀프리더십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부족은 정체성과 주도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셀프리더십과 부적상관을 가진다(안영순, 2017).

셀프리더십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전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자신을 컨트롤하고 발전시켜 자신의 진로선택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진로장벽을 진로상담과 교육을 통해 충분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장벽은 하위 요인 중 미래불안과 같이 자신의 미래나 진로, 능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셀프리더십은 이러한 진로장벽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3. 셀프리더십과 진로포부의 관계

셀프리더십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을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신승원, 2014).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건설적 사고전략에서 자신의 수행 능력이 긍정적일 것을 상상하고 믿으며 또한 그럴 수 있다고 확신을 주는 대화 등의 특징은 포부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이순화, 2015). 실제로 정은이(2010)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포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과거 중, 고등학교 때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진로포부를 발달시키기 어렵다. 그 때 스스로 삶을 디자인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 등의 전략을 배우게 된다면 더 폭 넓은 진로결정과 진로준비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무성의한 응답 22부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분석 자료는 344부가 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44)

요인		구분(명)	요인(%)
성별	남	119	34.6
	여	225	65.4
학년	1학년	44	12.8
	2학년	76	22.1
	3학년	169	49.1
	4학년	55	16.0

B. 측정 도구

1. 진로포부

O'Brien과 Fassinger(1993)가 개발한 진로포부검사(The Career Aspiration Scale)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최수욱(2003)이 번안한 10문항의 진로포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분야에서의 계획과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예로 향후 자신이 준

비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지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이끌어가는 상황,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꾸준히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직업적인 측면에서 직급이 올라가는 등 성장을 한다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 내용에 따라 2개의 하위요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까지 표시한다. 총점수의 범위는 10점-50점까지이며 4개의 역채점문항(3,4,7,10번)이 포함되어 있다. 예로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미나와 박재황(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 는 .752로 나타났다.

<표 2> 진로포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N=344)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지도자성향	1, 2, 5, 10*	4	.801
발전성공욕구	3*, 4*, 6, 7*, 8, 9	6	.746
	총점	10	.752

*은 역문항채점임.

2. 진로장벽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영(2001)이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장애 탐색검사(KCBI)를 사용하였다. 한국대학생 진로장애탐색검사는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500여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개발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본다. 2개의 역문항(14, 22번)이 존재한다. 위 척도는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갈등, 직업정보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등 총 9개의 하위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진로를 결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 등장하는 장애적 요소를 측정한다. 예로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정(2018)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 는 .869로 나타났다. 각 측정 변인의 Cronbach's α 는 <표 3>과 같다.

<표 3> 진로장벽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N=344)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대인관계어려움	2, 12, 22*, 32, 41	5	.867
자기명확성부족	1, 10, 11, 20, 21, 31, 40	7	.814
경제적어려움	7, 17, 27, 37, 45	5	.767
중요한타인갈등	3, 13, 23, 33, 42	5	.826
직업정보부족	4, 14*, 24, 34, 43	5	.798
나이문제	9, 19, 29, 39	4	.821
신체적열등감	8, 18, 28, 38	4	.777
흥미부족	5, 15, 25, 35	4	.715
미래불안	6, 16, 26, 30, 36, 44	6	.772
	총점	45	.869

*은 역문항채점임.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Houghton과 Neck(2002)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척도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를 신용국, 김명소, 한영석(2009)이 번안하여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행동 중심적 전략 18문항, 자동적 보상전략 5문항, 건설적 사고전략 12문항으로 3요인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요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로 측정하였고(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 예로서 대학생의 대상으로 한 이순화(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 는 .763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 변인의 Cronbach's α 는 <표 4>과 같다.

<표 4> 셀프리더십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N=344)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행동전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880
자동적보상	19, 20, 21, 22, 23	5	.807
건설적사고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2	.889
	총점	35	.763

C. 연구 절차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광주에 위치한 C대학교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남, 여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하기 전, 연구에 대한 안내와 설문의 목적, 참가자의 권리 및 비밀보장의 원칙, 설문 응답방식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설문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설문지는 성별, 나이, 진로포부, 진로장벽, 셀프리더십 등 총 3가지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366부 중 불성실하거나 무응답하였다고 판단된 22부를 제외하고 총 344부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D.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24.0을 이용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하위요인을 포함한 각 척도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자료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진로장벽, 진로포부, 셀프리더십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인을 잘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실시하였으며, 적합도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진로장벽과 셀프리더십은 하위척도를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고, 진로포부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문항을 2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연구 모형 타당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적합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치로는 절대적합지수는 χ^2 , GFI와 증분적합지수인 CFI, TLI, IFI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최종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간접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A. 기술 통계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5>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N=344)

요인		구분(명)	요인(%)
성별	남	119	34.6
	여	225	65.4
학년	1학년	44	12.8
	2학년	76	22.1
	3학년	169	49.1
	4학년	55	16.0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수는 남자는 119명(34.6%), 여자는 225명(65.4%)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학년별로는 3학년 169명(49.1%), 2학년 76명(22.1%), 4학년 55명(16.0%), 1학년 44명(12.8%) 순으로 나타났고, 3학년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포부, 셀프리더십 변인의 차이는 셀프리더십에서만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에서 남자의 평균은 여자의 평균보다 낮았으며 이는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남자 3.3532 < 여자 3.4756, $p < .05$). 특히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행동전략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남자 3.3576 < 여자 3.5911, $p < .001$).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포부, 셀프리더십 변인의 차이는 진로포부의 경우, 4학년이 제일 평균이 높으며 그 뒤로 2학년, 3학년, 1학년 순서였다. 진로장벽의 경우, 2학년이 가장 강하게 경험하며 그 뒤로 4학년, 1학년, 3학년 순서였다. 셀프리더십의 경우, 4

학년이 가장 평균이 높으며 그 뒤로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였다.

그러나, 집단-간 유의확률을 보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p<.05$).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진로포부(지도자성향, 발전성공욕구), 진로장벽(대인관계어려움, 자기명확성부족, 경제적어려움, 중요한타인갈등, 직업정보부족, 나이문제, 신체적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셀프리더십(행동전략, 자동적보상, 건설적사고)의 기술 통계치는 <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고 있는 변인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약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관찰 변인의 정규분포성 가정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다변량 측정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 2이하, 첨도는 절대값 7이하 일 경우 정상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West, Finch & Curran(1995)),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측정 변인들을 보면 정상성에 위배되지 않아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한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는 아래와 같다.

<표 6>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44)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포부	1.50	4.70	3.35	.55	-.13	-.05
지도자성향	1.00	5.00	3.18	.85	-.30	-.12
발전성공욕구	1.67	4.67	3.47	.51	-.20	-.02
진로장벽	1.20	4.04	2.50	.56	-.01	-.25
대인관계어려움	1.00	5.00	2.52	.85	.43	-.16
자기명확성부족	1.00	5.00	2.75	.74	-.11	-.17
경제적어려움	1.00	4.60	2.54	.78	.19	-.21

중요한타인갈등	1.00	4.60	2.15	.82	.56	-.25
직업정보부족	1.00	4.80	2.77	.79	-.03	-.38
나이문제	1.00	5.00	2.08	.87	.70	.07
신체적열등감	1.00	4.50	1.87	.80	.90	.30
흥미부족	1.00	4.00	2.49	.72	-.00	-.57
미래불안	1.00	4.83	2.95	.74	-.31	.07
셀프리더십	1.49	4.77	3.43	.52	-.28	.97
행동전략	1.39	4.83	3.51	.55	-.31	1.13
자연적보상	1.00	5.00	3.20	.75	-.15	.42
건설적사고	1.00	5.00	3.42	.67	-.18	.42

B. 측정 변인 및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 진로포부,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주요 변인들과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먼저 독립변인 진로장벽과 종속 변인 진로포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03, p < .01$). 이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개인의 진로포부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장벽의 하위영역 또한 자기명확성부족($r = -.342, p < .01$), 흥미부족($r = -.326, p < .01$) 순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독립변인 진로장벽과 매개변인 셀프리더십 역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189, p < .01$). 즉,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 때 개인의 셀프리더십은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적보상($r = -.260, p < .01$), 건설적사고($r = -.247, p < .01$)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 셀프리더십과 종속변인 진로포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나타났다($r = .525, p < .01$). 이는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개인의 진로포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았을 때, 행동전략($r = .445, p < .01$), 자동적보상($r = .399, p < .01$), 건설적사고($r = .458, p < .01$)로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N=344)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303**	1														
3	.525**	-.189**	1													
4	-.308**	.660**	-.217**	1												
5	-.342**	.828**	-.259**	.586**	1											
6	-.096	.674**	-.024	.345**	.437**	1										
7	-.131*	.684**	.002	.264**	.455**	.415**	1									
8	-.251**	.722**	-.160**	.441**	.606**	.367**	.390**	1								
9	-.119*	.607**	-.121*	.295**	.384**	.372**	.409**	.288**	1							
10	-.191**	.611**	-.129*	.386**	.407**	.393**	.454**	.212**	.489**	1						
11	-.326**	.743**	-.219**	.409**	.564**	.424**	.475**	.591**	.373**	.372**	1					
12	-.150**	.798**	-.069	.380**	.658**	.537**	.494**	.622**	.361**	.313**	.605**	1				
13	.445**	-.050	.873**	-.069	-.107*	.057	.059	-.090	-.068	-.050	-.146**	.067	1			
14	.399**	-.260**	.685**	-.324**	-.341**	-.075	-.041	-.181**	-.134**	-.119*	-.189**	-.186**	.387**	1		
15	.458**	-.247**	.877**	-.256**	-.299**	-.090	-.049	-.168**	-.130**	-.176**	-.229**	-.152**	.572**	.615**	1	

*p < .01

**p < .05

1. 진로포부 / 2. 진로정벽 / 3. 셀프리더십 / 4. 진로정벽_대인관계어려움 / 5. 진로정벽_자기명확성부족 / 6. 진로정벽_경제적어려움 / 7. 진로정벽_중요한대인갈등 / 8. 진로정벽_직업정보부족 / 9. 진로정벽_나이문제 / 10. 진로정벽_신체적열등감 / 11. 진로정벽_흥미부족 / 12. 진로정벽_미래불안 / 13. 셀프리더십_행동전략 / 14. 셀프리더십_자연적보상 / 15. 셀프리더십_건설적사고

< 2 >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C.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이전에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첫 번째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지수(X^2 , TLI, CFI, GFI, IFI, RMSEA)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TLI, CFI, GFI, IFI,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9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RMSEA값은 .05이하면 아주 좋은 모형이고 .08이하면 괜찮은 모형의 적합도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RMSEA값이 .095를 나타내 양호한 모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변수의 수가 작기 때문으로 추측된다(홍세희, 2000). 그렇기에 CFI 위주로 모형의 적합도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본 연구는 적합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치로 절대적합지수인 X^2 , GFI와 충분적합지수인 IFI, TLI, CFI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모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하위요인의 관계를 삭제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진로장벽 → 신체적열등감($\beta=.310$), 진로장벽 → 나이문제($\beta=.309$)). 이로 인해 수정모형에서 X^2 값이 크게 감소하였고 모든 적합도가 상승하여 기존모형보다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7>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X^2	df	p	GFI	TLI	IFI	CFI	RMSEA
측정모형	327.312	74	.000	.870	.835	.867	.866	.100
수정모형	208.912	51	.000	.902	.875	.904	.903	.095

<표 7>에서는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측정

모형에서 $X^2(df=51, N=344)=208.912$, $GFI=.902$, $TLI=.875$, $IFI=.904$, $CFI=.903$, $RMSEA=.095$ 으로 나타났다. GFI , IFI , CFI 모두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TLI 는 .875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90이상 값보다는 조금 적은 값을 보이지만, CFI 와 비슷한 개념의 적합도로서, CFI 와 비슷한 수치를 제공한다(우종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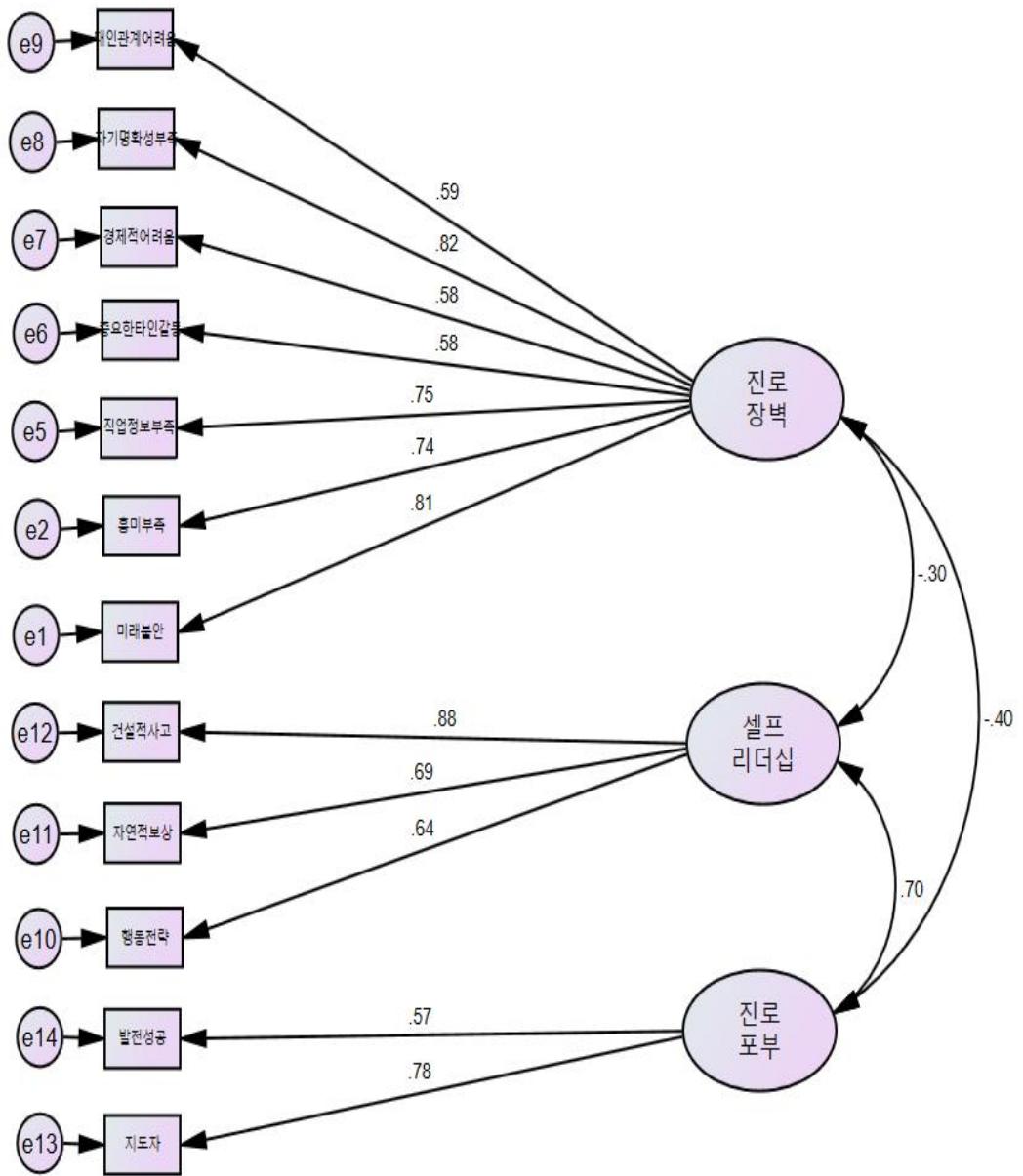
<표 8> 측정모형 잠재변인 간 관계

(N=344)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t
진로장벽	→미래불안	1.000	.806	Fix	Fix
	→흥미부족	.897	.744	.062	14.561***
	→직업정보부족	.988	.748	.067	14.662***
	→중요한타인갈등	.790	.575	.074	10.751***
	→경제적어려움	.750	.577	.070	10.773***
	→자기명확성부족	1.007	.818	.062	16.363***
	→대인관계어려움	.840	.588	.076	11.011***
진로포부	→지도자성향	1.000	.777	Fix	Fix
	→발전성공욕구	.443	.570	.058	7.613***
셀프리더십	→행동전략	1.000	.642	Fix	Fix
	→자연적보상	1.469	.693	.141	10.407***
	→건설적사고	1.670	.875	.150	11.130***

* $p<.05$, ** $p<.01$, *** $p<.001$

<표 8>에서 제시한 것처럼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57에서 .87사이로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란 .50이상이 되어야 하고 .70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로 잠재변인을 측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3>처럼 대 부분의 값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표 9> 측정모형 주요변인 간 판별타당도 검증

(N=344)

구분	상관관계			AVE	개념신뢰도
	진로장벽	셀프리더십	진로포부		
진로장벽	1	-	-	.61	.91
셀프리더십	-.30**	1	-	.74	.90
진로포부	-.40**	.70**	1	.67	.80

** $p < .01$

<표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판별타당도를 통해 본 주요변인 간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AVE)값은 .50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념신뢰도는 .70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평균분산추출(AVE)값과 개념신뢰도 값은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건 중 첫 번째, 평균분산추출(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커야한다는 것을 충족하였다. 두 번째, 상관계수 ± 2 x 표준오차 값이 1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충족하였다.

D. 연구모형 검증

1.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 속 변인들의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에서는 표준화된 계수(β)를 통하여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며, t 값(C.R)을 통해 매개모형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분석하여 모형을 검증할 수 있었다. 표준화된 계수로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진로장벽이 셀프리더십($\beta = -.295, p < .001$), 셀프리더십이 진로포부($\beta = .641,$

$p < .001$), 진로장벽이 진로포부($\beta = -.213, p < .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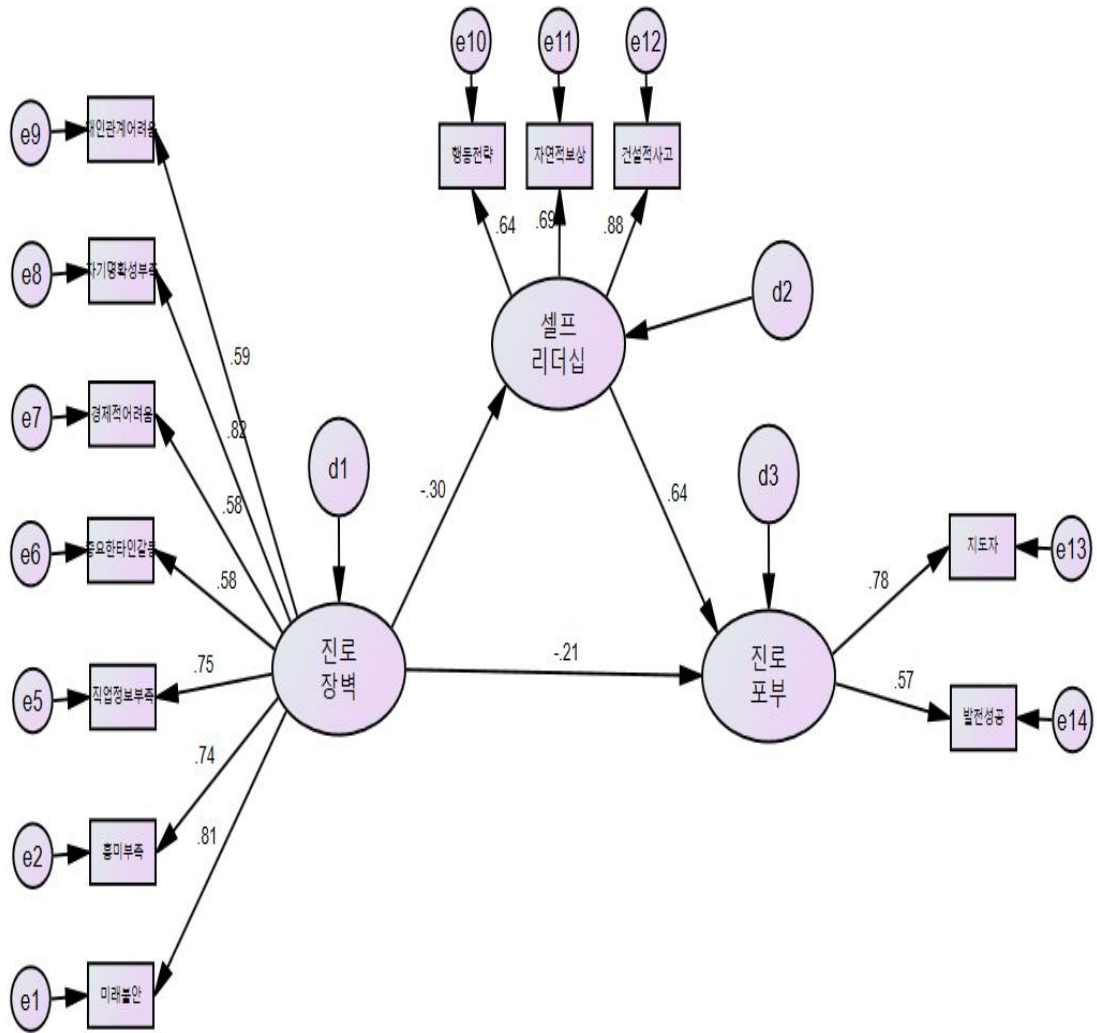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낮아지고,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포부의 수준은 높아지며,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포부의 수준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전체 구조모형과 경로계수는 <표 9>와 <그림 4>와 같다.

<표 10> 최종연구모형 경로계수

($N=344$)

경로	B	β	S.E	t
진로장벽 → 셀프리더십	-.17	-.30	.04	-4.50***
셀프리더십 → 진로포부	1.20	.64	.15	7.98***
진로장벽 → 진로포부	-.23	-.21	.07	-3.3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최종 연구 모형

2. 매개효과 검증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00개의 표본을 원자료(N=344)로부터 생성하여 사용하였고,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최종모델의 총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한 다음,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1> 전체 집단의 구조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N=344)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진로장벽 → 셀프리더십	-.443	.000	-.295
셀프리더십 → 진로포부	.502	.000	.641
진로장벽 → 진로포부 셀프리더십	-.370	-.189**	-.563

* $p < .05$ ** $p < .01$, *** $p < .001$

<표 10>에 나온 결과를 요약하자면, 진로장벽이 진로포부로 가는 경로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셀프리더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인들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장벽, 진로포부,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중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간에 성별과 학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을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지각함과 동시에 진로포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연구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최수옥, 2003; 윤창영, 2005).

이러한 결과는 취업난 등과 같은 현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한다. 인문계열 학과보다는 공학계열 학과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대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휴학을 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등의 모습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진로나 취업에 대해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만의 방식보다는 미리 공인된 안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셀프리더십 변인에서는 남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평균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행동전략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위전략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주변의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화하고 자신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특징을 가졌다.

행동전략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하는 특정행동을 조사하고 관찰하는 자기 관찰, 스스로 내적보상을 함으로써 미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 보상,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일 때는 자신을 교정하는 자기비판 등을 측정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개인 내부에 대한 탐색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을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 진로포부, 셀프리더십 변인 모두가 상호간에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은 종속변인인 진로포부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자신의 진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개인적, 환

경적 장애물을 크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진로에 대한 포부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장벽이 진로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앞서 설명한 여러 선행연구들(정효경, 2009; 차아름, 2014; 이주연, 2015)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사회 인지 진로 이론을 포함한 많은 진로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진로를 결정하고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려된 맥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진로장벽은 다양한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마다 서로 다른 장벽을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장벽을 인식하여 진로에 대한 결정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 진로장벽과 매개변인인 셀프리더십 사이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하는데, 이런 결과는 개인이 장애물을 높고 강하게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이나 주도성이 저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박수현, 2015; 안영순, 2017).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스스로 진로, 직업적인 측면에서 직접 주도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거나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현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대학생을 포함한 후기청소년시기의 사람들은 사회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나면 자신이 원했던 진로나 하고 싶었던 진로보다는 안정적이고 위험부담이 적은 진로를 찾아가게 된다. 최근 공무원 같은 공직계열직업군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이유,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의 진로장벽이나 모호성이나 흥미불일치 같은 개인적 측면의 진로장벽이 높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진로를 발달해나가다 보면 이후에 직업장면에서 공허함이나 부적응, 실패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해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애초에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그러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가 개인의 긍정적인 주도성을 저해하게 된다.

셀프리더십과 진로포부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셀프리더십이 높을 때 개인의 진로에 대한 포부도 같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행동을 조성하며 스스로 보상하는 특성을 가진 셀프리더십이 적절하게 발휘될 때, 개인은 자신의 미래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적 자기관리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도적으로 진행하

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로준비와 진로성공을 예측한다는 연구들(Andrea, Bettina, 2008; Eileen, 2018; Corey, 2018)과 맥락을 같이 한다. 셀프리더십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조절하며 행동해나갈 때 그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큰,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는 직업적 성공을 예측하게 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셀프리더십을 선정하였는데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사이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2에서 상정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진로장벽을 높고 강하게 지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로장면이나 계획에 대해 스스로 조절하고 진행해나가는 셀프리더십이 저하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개인적 기대인 진로포부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셀프리더십이라는 특징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고 통제적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특징을 가진 셀프리더십을 발달시킬 수 있다면 진로포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장벽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장애물이나 위기일수도 있지만, 대 부분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장벽을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그 장벽을 해결할 수 없다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벽에 대한 신념을 바꾸거나 혹은 장벽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본인에게 있다고 인지하게 되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셀프리더십의 특징은 주어진 환경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지각된 진로장벽에 대해 긍정적인 대처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진로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종류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벽 자체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셀프리더십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장벽에 대안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로포부가 상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실을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진로를 위협하는 장벽에 대한 불안이나 위기의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변인(셀프리더십)을 알아봄으로써 진로 상담에 있어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예측하기 힘들고 쉽게 변하는 현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기 어렵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는 원하지 않는 방향의 진로를 선택하게 한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진로, 직업적인 측면에서 내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대학생들에게 스스로 적응적인 진로발달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그동안 진로포부에 관련된 연구들이 청소년위주로 진행된 것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치관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채 대학에 입학하고 이어서 취업을 하여 조기 퇴사 등 직업 내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러 성인들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학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고등학생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보였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대해서 남녀 간의 차이와 학년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연구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연구도 있다.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남자 혹은 여자 등 특정 성별 집단만을 보는 연구를 진행하여 그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결과나, 셀프리더십 등의 변인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연구결과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 내용으로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미비한 편이다. 해외에서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발달을 도모하는 등 진로고민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후속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효과성을 입증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VI. 참고 문헌

- 강명숙 (2015).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유선, 조은애 (2011). 학업우수 고등학생이었던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 강진석 (2014). 21세기 통일한국 지도자 육성을 위한 리더십 철학. 동인.
- 궁화수, 서가원 (2018).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 김경미, 배영광, 민이슬, 장성화 (2014). 진로정체감과 Krumboltz의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4(11), 497-508.
- 김경화 (2013). 대학생 셀프리더십과 취업전략 간의 관계 및 영향분석. 청소년학연구, 20(10), 369-390.
- 김상욱 (2010).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1), 219-240.
- 김이준 (2012).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와의 관계 : 자아존중감, 학업적자기효능감의 효과 검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경 (2017). 대학생의 심리적·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매개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현 (2015).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낙관성과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외자 (2010).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 자기 주도적 학습, 학업효능감, 결과기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한샘 (2008).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와의 관계 : 사회적지지 및 희망의 중재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 10권, 제 4호, 129-151.

- 박혜영, 공민영 (2015).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과정(GTEP) 참여 대학생들의 내적, 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 간의 구조적 관계. 무역연구, 제 11권, 제 3호, pp. 325-346.
- 배영자, 심성지 (2013).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의 내, 외적 진로장벽과 사회복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vol. 29, no. 4, 67-91.
- 손은령 (2005). 진로선택고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 상담학연구, 5(3), 623-635.
- 송영수 (2011). 기업 내 셀프리더십 필요역량 탐색. HRD연구 13(3), 51-74.
- 신승원 (201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아개념,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성인교육학회, Vol. 17, No. 1, pp.23-46.
- 안영순 (2017). 일반계 여고생의 셀프리더십 및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미진, 허자영, 채민정, 김경민 (2010).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장벽 연구 :사이버 상담 게시판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4) :45-73.
- 우종필 (2016).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1.
- 유채은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 진로장벽,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 12권, 제 4호, pp. 143-166.
- 윤창영 (2005).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 :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1), 244-245.
- 윤하늬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화 (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찬, 홍아정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1), 69-92.
- 이주연 (2015).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통제감과 의미부여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미애, 김정모 (2012). 대학생의 인성특성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0(1), 71-85.
- 전찬열 (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0(1), 1-14.
- 정은이 (2010).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장애, 진로포부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4), 75-91.
- 정호경 (2009).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자기격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현주 (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의 관계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의 매개 및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25(3), 61-75.
- 차아름, 이희경 (2014).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vol. 15, no. 1, 343-358.
- 최재혁, 홍혜영 (2016). 진로포부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9(2), 129-143
- 최수옥 (2003).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용용, 윤현희, 이정애 (2009). 장애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19(2), 5-28.
- 최현정 (2006). 희망과 성취목표가 진로포부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매향, 김계현 (2001).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11-12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ndrea E. A., & Bettina S. W. (2008). The nomological network of self-management strategies and career succes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1, 733 - 749.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Hotchkiss, L. K., & Borow, H. (1996). Sociological perspective on work and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and L. Brooks, Editors, *Career choice and*

- development(3rd ed.). Wiley. San Francisco. CA (1996). 281-336.
- Houghton, J. D., & Neck, C. P. (2002). The revised self leadership question 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s tructure for self 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Manz, C. 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 Manz, C. C., & Neck, C. P. (1999).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Manz, C. C., & Sims, H. P. Jr. (2001). *New super 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San Francisco, CA: Berrett-Koehler.
- O'Brien, K. M., Gray M. P., Tourajdi, P. P., & Eigenbrode. S. P. (1996). The operationalization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 V. S. Solberg & K. M. O'Brien(Chars). *Promoting women's career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ennium and beyound*. Symopisum conducted at the 1996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sental, B. S. (1995).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school completion among Haitian. *Journal of Social Work in Education*, 17, 30-39.

VII. 부록

<부록 1> 진로포부 척도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번호	문항내용					
		1	2	3	4	5
1	나는 내 진로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	1	2	3	4	5
2	나의 진로에서 자리가 잡히면 나는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고 싶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1	2	3	4	5
4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 혹은 사업 분야에서 승진을 위해 에너지를 쏟을 계획은 없다.	1	2	3	4	5
5	내 진로에서 자리가 잡히면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싶다.	1	2	3	4	5
6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업을 통해 승진하고 싶다.	1	2	3	4	5
7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교육을 마친 후에는 계속하여 교육받을 필요를 못 느낀다.	1	2	3	4	5
8	나의 직업 분야에서 전문가로 발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1	2	3	4	5
9	내가 관심 있는 직업 분야에서, 졸업 후에도 훈련을 계속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내 직업에서 지도자 위치를 얻는 것이 나에겐 그리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부록 2> 진로장벽 척도

◎ 잘 읽고 자신의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번호	문항내용					
		1	2	3	4	5
1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	나는 인간관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1	2	3	4	5
3	앞으로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1	2	3	4	5
4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5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일이 점차 지루해질 것이다.	1	2	3	4	5
6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취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1	2	3	4	5
7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1	2	3	4	5
8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나쁘다.	1	2	3	4	5
9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1	2	3	4	5
10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의 습득능력이 부족하다.	1	2	3	4	5
11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하다.	1	2	3	4	5

12	나는 직장생활에서 일과 관련된 어려움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1	2	3	4	5
13	나는 부모님이나 애인이 나의 진로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1	2	3	4	5
14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5
15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에 흥미가 점점 없어질 것 같다.	1	2	3	4	5

16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1	2	3	4	5
17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1	2	3	4	5
18	나는 건강 때문에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	2	3	4	5
19	나는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0	나는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21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내리고 난 후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22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쉬울 것이다.	1	2	3	4	5
23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1	2	3	4	5
25	나는 흥미 있는 일이나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없다.	1	2	3	4	5
2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27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1	2	3	4	5

28	신체적인 열등감이 나의 직업선택이나 계획에 영향을 준다.	1	2	3	4	5
29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서 남들에게 뒤쳐질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30	나는 취업이 잘 안될 것이다.	1	2	3	4	5

31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32	나는 앞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1	2	3	4	5
33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5
3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1	2	3	4	5
35	내가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	1	2	3	4	5
36	경기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1	2	3	4	5
37	경제적 문제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1	2	3	4	5
38	나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39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 지장을 받을 것이다.	1	2	3	4	5
40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다.	1	2	3	4	5
41	나는 무슨 일을 하려면 몹시 긴장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	2	3	4	5
42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43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1	2	3	4	5

44	시대 흐름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	2	3	4	5
45	나는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부록 3> 셀프리더십 척도

◎ 아래의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번호	문항내용					
		1	2	3	4	5
1	나는 공부나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1	2	3	4	5
2	내가 세운 목표들을 엄두에 두면서 공부나 과제를 수행한다.	1	2	3	4	5
3	내 스스로 세운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1	2	3	4	5
4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구체적 목표들을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1	2	3	4	5
5	나는 단기적 목표뿐만 아니라 장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곤 한다.	1	2	3	4	5
6	나는 과제를 잘 해냈거나 시험을 잘 보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보상한다.	1	2	3	4	5
7	내가 한 일이나 공부의 결과가 좋을 때 근사한 저녁, 영화 관람, 쇼핑 등 특별한 이벤트를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보상한다.	1	2	3	4	5
8	내가 많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평상시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격려하고 보상한다.	1	2	3	4	5
9	내가 맡은 과제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0	나는 과제를 제대로 못했거나 시험을 못 보면 자책하곤 한다.	1	2	3	4	5
11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지 못할 때, 가끔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불쾌함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가 있다.	1	2	3	4	5
12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스스로가 실망스럽다.	1	2	3	4	5
13	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	2	3	4	5
14	공부나 과제를 수행할 때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학교나 학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곤 한다.	1	2	3	4	5
16	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가 맡은 부분의 진행 사항과 결과들을 꼼꼼히 점검한다.	1	2	3	4	5
17	내가 해야 할 일은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둔다.	1	2	3	4	5
18	내가 해야 할 일의 집중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노트, 리스트, 핸드폰, 메모장 등)을 사용한다.	1	2	3	4	5
19	나는 어떤 과제를 맡든지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구상한다.	1	2	3	4	5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	1	2	3	4	5
21	과제를 맡으면 마무리하는 것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	1	2	3	4	5
22	나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혹은 공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를 찾는데 관심이 많다.	1	2	3	4	5
23	나는 학교나 학과와 관련된 활동 중 불만족스러운 측면보다는 즐거운 측면의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	1	2	3	4	5
24	나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1	2	3	4	5

	내 모습을 먼저 상상해본다.					
25	나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공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1	2	3	4	5
26	중요한 과제를 맡으면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상상을 하곤 한다.	1	2	3	4	5
27	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1	2	3	4	5
28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실제로 해결하기 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시연해보곤 한다.	1	2	3	4	5
29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할(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때가 있다.	1	2	3	4	5
30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잘 이겨내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1	2	3	4	5
31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할(소리를 내거나 생각으로)때가 있다.	1	2	3	4	5
32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혹시 내 신념이나 가치관들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본다.	1	2	3	4	5
33	다른 사람들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내 생각이나 신념이 옳은지 솔직하고 분명하게 분석해본다.	1	2	3	4	5
34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이나 판단이 적절한지 평가해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5	나는 평소에 내 기본 신념이나 가정들이 합리적인지를 생각해본다.	1	2	3	4	5